

전 남

“스토리텔링 활용 남도 향토음식 상품화를”

#영광 연암김씨 문중 제사상에는 조그맣고 흠이 빠지지 않고 오...

김지현 광주여대 교수 마케팅 강조

순천 ‘이순신 밥상’·영광 굴비 등 고증 나서

제 강연을 통해 “전남 전통·향토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가공, 포장해 상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전남은 ‘맛의 보고장’으로 자처하면서도 전통·향토음식의 역사적인 뼈대와 뿌리에 대한 고증작업 없이 지역 특산물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남 명가와 지역의 전통·향토음식을 ‘문화상품’으로 인식하고 마케팅의 한 방안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영광 등 전남 각 지자체에서도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지역 명인들이 보유한 70여 가지 향토음식을 대

상으로 ‘자연밥상 표준화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순신 밥상’ 등 4종의 대표음식 상차림을 확정했다.

이 중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대접했던 낙안음성의 전통음식인 ‘팔진미’(八珍味=석이버섯, 고사리, 도라지, 더덕, 미나리, 무, 목, 민물고기)를 비빔밥과 한정식 차림으로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회무침, 대경이무침, 고들빼기 김치, 짬뽕어탕 등 순천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로 구성했다. 이순신 장군이 군수물자 수송로를 확보하려고 낙안음성에 들렀을 때 백성들이 정성껏 찬을 만들어 올린 데서 유래했

다고 한다.

영광군 역시 지역 대표 특산물인 ‘굴비’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고려 이자겸의 유배지를 발굴하고 고중에 나설 계획이다. 고려 인종 4년(1126년) 난을 일으켰다가 영광 범성포로 귀양을 왔던 이자겸은 해중에 말린 조기를 처음 맛보고 그 맛이 좋아 임금에게 진상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屈) 않겠다(非)’는 의미로 굴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 음식연구회’(회장 임화자)에서도 조리법을 개발하고 기술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지역의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박춘심 농촌지도사는 “향토음식은 각 지역의 자연과 역사환경이 어우러진 토착음식”이라며 “남도 전통·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존,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산구 운남 주공1-3단지 후문~마지초등간

“통학로 개설 해주오”

기초등학교길 좁아 사고 위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 등을 위한 통학로와 보행자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21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민들에서 따르면 운남동 주공아파트 1~3단지와 삼선, 남양아파트에서 1천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인근 마지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다.

이들 아파트에서 마지초등학교까지는 200여m에 달한다. 하지만 도로 폭이 3m 밖에 안되는데다 차량 통행이 잦아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민들은 “주공 아파트단지 후문에서 마지초등학교까지 50여m 길이의 통학로를 개설하면 등교거리도

150여m나 줄어들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운남동 운남교~종합체육시설까지 500여m 구간에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고 통영정전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가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민 김병우(50·삼삼아파트)씨는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가슴을 찡찡하며 ‘영역정전’에 교량이 개설되면 학생들은 물론 운남동과 가톨릭 주민들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량 자체도 광산구의 새로운 명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대기자 wrtee@

신안에 전국 최대 게르마늄 첫갈타운

5200㎡ 100억 들어 연내 준공 브랜드 육성 관광객 유치

신안에 전국 최대규모의 게르마늄 첫갈타운이 조성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첫갈류 주생산지인 신안군 지도읍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부지 3만5천여㎡, 연건평 5천200여㎡ 크기의 신안 게르마늄 첫갈타운이 건립된다.

신안은 연간 전국 새우 첫갈 생산량의 78%가 넘는 1만1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게르마늄이 풍부한 입자도해역에서 주로 생산돼 맛과 향이 뛰어나지만 대부분 원로 상태로 출하되고 있어 가공제품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신안 첫갈을 브랜드화하고 상품 가공·저장·판매·홍보·체험을 할 수 있는 첫갈타운을 조성해 첫갈을 신안의 주요 브랜드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첫갈타운이 조성되면 첫갈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매년 첫갈을 주제로 한 축제와 이벤트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우 첫갈 주시회사의 저온 저장시설과 함께 전국 최고 첫갈생산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환경정책관은 “첫갈타운이 연내 준공되면 증도의 열도라도 리조트, 태평염전 등 섬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계관광지로 활용하겠다”며 “천일염 등과 함께 지역인 소득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 신항에 준설토 투기장

형만칭 7억 들어 환경평가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목포항 내 준설토를 처리할 투기장을 목포 신항에 건설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목포항 내 남항, 북항 대반동 등 기존에 조성된 투기장이 올해 말이면 준설토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목포항만청은 목포 신항 2단계 사업과 입·출항 선박의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등 앞으로 항만 개발을 위해서는 200만㎡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해 설계비 7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 위치는 대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장애 부지활용 등을 고려해 목포 신항 항만 배후단지 예정지로 결정했다.

목포항만청 김삼열 청장은 “준설토 매립이 완료되면 항만 배후단지 등으로 개발, 물류관련 기업 유치 등 물류당 창출은 물론 신항개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틀립축제 준비 손길 분주

작업 인부들이 다음달 16일부터 10일간 신안군 임지면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신안 틀립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전국 최대 규모인 14ha의 신안 틀립단지에는 50개 품종의 틀립 600만 송이가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버섯 폐배지 닭 사료로 활용

도 축산기술연 연구결과

버섯 재배에 사용된 후 버려지는 배지(培地)를 축산농가의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버섯 폐배지 사료화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축산농가에게 버섯 폐배지 사료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버섯 폐배지는 배지를 일반 배합사료와 혼합 사료로 만들어 닭 사료로 주면 배합사료만 주는 일반사육 때보다 사료 값이 9% 이상 절약되고 약취 제거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이에 따라 배지를 미생물 발효 사료배합기에서 유산균 등 5종의 균종과 혼합 투입해 25~27도에서 10일간 배양·건조한 뒤 배합사료로 만들어 축산시장의 닭 360마리에게 35일간 먹이로 제공했다.

시험결과 일반 사육에 비해 닭의 몸무게가 2%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김지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갯벌 보전 한·중·일 힘 모으다

3년간 모니터링 등 ‘황해 생태지원사업’ 추진

무안갯벌에서 올해부터 3년간 황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한·중·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서해 생태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황해 생태 지원사업(YSESP: Yellow Sea Ecoregion Support Project)’을 추진한다.

한국해양연구원과 세계자연보존기금(WWF) 일본·중국 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의 경우 무안갯벌에서 앞으로 3년간 ▲갯벌 생

태계 모니터링 ▲갯벌지역 네트워킹 구축 ▲한·일 갯벌생태지역 주민 교류 ▲갯벌 상품개발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중국도 압록강 지역 생태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3일 한국해양연구원, 세계자연보존기금(WWF), 생태지평연구소, 무안군 등과 함께 무안 갯벌의 보전활동에 지원 협력을 약속하는 황해 생태지원사업(YSESP) 협약 맺을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

오늘부터 무안군 감사

감사원, 기업도시 관련

감사원이 22일부터 무안기업도시와 관련해 무안군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무안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감사 대상은 무안군과 기업도시사업단,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법인(한중미래도시) 등이다.

이에 앞서 무안지역 주민 3천500여명은 지난해 11월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반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무안군 예산낭비,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김진민기자 jun@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Efficient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FAX)223-1772 and 011-602-253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양광발전소부지구함' (Daeyoung Power Plant Sub-division) and '광주·전남권 중형마트구함' (Gwangju/Jeonnam Medium-Market Sub-divis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wangmin Law Auction) with contact info 0621364-8700 and 010-4608-3700.